

- ◆…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
- ◆…는 인간의 열원은 인류의 역사만
- ◆…큼 그 뿌리가 깊다. 불확실한 통
- ◆…계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역
- ◆…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 ◆…리아스 시대에는 29세, 16세기 유
- ◆…현인의 수명은 21세 17세기에
- ◆…26세, 18세기에는 34세였으며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 ◆…55세로 연장되었다. 역대(歷代)
- ◆…중국 황제의 수명은 의외로 짧아
- ◆…평균 39.2세로 거의 불혹(不惑)

)의 나이에도 이르지 못하고 요…◆  
절(夭折)하고 말았다. 진(秦, BC…◆  
221)으로부터 청말(清末, AD 1911…◆  
)에 이르는 2천 1백여년 동안 중…◆  
국을 통치한 역대(歷代) 황제는…◆  
모두 230명이었다. 그중 정확한…◆  
록이 남아 있는 209명 중 80…◆  
세 이상의 장수자는 4명에 불과…◆  
했다. 지존(至尊)의 자리에 있었…◆  
던 천자(天子)들이 기껏해야 40…◆  
도 못살고 말았다는 얘기다. …◆

면 우리몸에 좋지 않을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서양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7할 이상이 육식이며 우유와 계란을 결들이지 않는 식사를 보기 어렵지만 65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들이 먹는 식사가 균형있는 것이 되려면 어느 한 가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

육식을 많이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육식에 치우치는 서양사람들에게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는 식사법이 아니다.

40대 이후 장수할 수 있는

## 食生活대책을 中心으로



### 知足安分의 자세로 節制하는 마음가질때 天壽의 福 누릴수있어



許 程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나갔다. 그러나 이처럼 평균수명의 연장을 보게되자 새로운 현대병으로서 성인병(成人病)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암종,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전염병을 대신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병들은 대개 나이를 먹은 어른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성인병이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병(老人病)이라 하기도 한다.

근래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

병장수(無病長壽)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합리적인 영양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서양속담을 보면 「네가 먹는 음식이 너 자신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약으로 몸을 보하는 약보(藥補)보다는 먹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보(食補)가 더 낫다고 하기도 하며 약과 음식은 같다고 해서 약식동원(藥食同源)이란 말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먹는 음식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독일 사람들의 음식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면 프랑스요리는 펙화려하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며, 미국의 음식은 쉽게 조리

식사법을 듣다면 첫째로 고루 먹으며 편식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에는 한가지만 먹어서 건강에 좋은 장수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양질(良質)의 동물성단백질(動物性蛋白質)을 계속 공급받아야겠다. 흔히 우리주변에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인병(成人病)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육식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동물성식품(動物性食品)의 섭취량이 훨씬 뛰어서 가능한 한 육식을 많이 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기기 적

장 가까운 식품의 하나다. 또한 단것을 먹을 때는 제철이나 파일을 드는 것이 좋으며 차방은 식물성지방(植物性脂肪)이 좋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일찌기 맹자(孟子)는 그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설파하면서 칠십이 넘은 사람이 누구나 고기반찬을 먹게되고 머리가 흰 사람이 큰 길에서 등집을 지지않게 돼야 군왕(君王)이 될 자격이 있다고 교집은바 있다.

역시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된 고기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되며 과식하지 말고 골고루 음식을 드는 것이 특정한 강장식(強壯食)이나 강정식(強精食)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식생활의 개선과 의학의 진보로 인간의 수명을 80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불로장수(不老長壽)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절실했던 욕망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늘은 황제(皇帝)라고 해서 천수(天壽)를 누리는 복(福)까지 마련해 주진 않는다. 다만 지족안분(知足安分)의 자세로 절제(節制)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천수(天壽)의 복(福)을 누리게 되리라 생각한다.

### 良質의動物性단백질·신선한야채·우유섭취

### 골고루 먹으며 편식하지말아야

機構)도 전염병의 감소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보건사업(國家保健事業)의 일환으로서 성인병 관리계획의 수립을 권장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병은 아직도 우리들이 갖는 의학지식으로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유발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다루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또한 성인병은 병을 일으키는 각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며 정신적인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성인병을 예방하여 무

할 수 있는 반면 편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 동양에서도 같은 중국요리라도 일본에서 먹는 것과 한국에서 먹는 중국요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전설만 보아도 음식과 수명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무릉도원(武陵桃源)에서 복숭아만 먹고 산 노인이 장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노벨상(賞) 까지 탄 메치니코프스는 발효한 우유를 먹어야 장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모두 밥을 먹어야 좋은 줄 알고 있으며 나이를 먹을수록 채식(菜食)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나이를 먹어서 육식(肉食)을 많이 하

은 된살코기를 조리해서 끼니 때마다 조금씩 거르지 말고 먹는 습관을 지켜나가야겠다.

우리들의 육체나 두뇌활동은 계속적인 동물성단백질(動物性蛋白質)의 공급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세번째로는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들도록 권하고 싶다. 그것도 제계절에 나오는 것을 가능한 한 구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찌기 공자도 제철에 난 것 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고 해서 불시불식(不時不食) 했다는 얘기가 논어(論語)에도 나온다.

네번째로는 가능한 한 우유를 많이 마시도록 권하고 싶다. 우유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완전식품(完全食品)에 가

## 漢方 健康料理

### 成人病克服의 길은 꾸준한 漢方料理療法으로!

食事療法은 체질개선을 가져오며  
체질개선이 되면 성인병은 물러갑니다.

고혈압·동맥경화·심장병·위장병·당뇨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한방건강요리로!

몸은 허약해지고 공부는 시커야 겠는데…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지고, 책상에 앓기만 하면 졸음부터 오고, 암기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 성적은 멀어지고, 이런 수험생의 補藥·補身에는 한방건강요리를!

일은 고달프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경우에 시달려도 지치지 않는活力, 매일 마시고 또 마셔도 거뜬한 몸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精力增進에 한방건강요리가 최고!

하서출판사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3  
☎ 392-3031~3



全7卷

이 한질의 채이  
온가족의 건강을 평생  
지켜 드립니다.

•변형국제판/各卷 168面/최고급 150g 아트紙 사용/양장/호화금박/各卷 케이스  
•출판기념 보급특가: 86,000원/계약금: 6,000원/잔금: 10,000원×8회 분할

추천 洪文和

- 약학박사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宋炳基
- 한의학박사
- 경희대학교 한의대교수
- 河善貞
- 요리학원장
- 전국요리학원연합회회장